

벤처여, 미디어 날개를 달아라



한국방송광고공사(이하 코바코)는 최근 우수중소기업에 대해 광고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. 이전에도 이런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?

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바탕을 두고 방송광고를 통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1998년 7월부터 “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”를 실시, 방송광고 요금을 정상 판매단가의 30%를 적용하고 우선시간대를 지정하는 등 현재 기술혁신형중소기업(이노비즈), 경영혁신형중소기업(메인비즈)까지 추가 확대 지원하고 있다.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우선시간대는 광고비 대비 광고효율이 높은 아침시간(오전 8시~10시), 저녁시간(오후 4~5시), 정오시간대로 선정했다. 광고지원 신청 시 형평성을 두기 위해 현재 방송되는 광고와 제품이 동일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.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만의 기술력이 남다르고 성장가능성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.

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, ‘우수 중소기업’의 선정 기준은?

현재 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” 및 “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” 상 중소기업청에 등록해 선정된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중소기업(이노비즈), 경영혁신형중소기업(메인비즈)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,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및 제품광고를 위주로 한다. 업종, 규모, 성장가능성, 방송광고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<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>에서 선정하고 있다.

“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” 기구 성격 및 구성은?

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(이하 협의회)는 방송광고 지원

선정 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, 중소기업청, 공사 관련기관 인사 9인으로, 방송광고 지원 및 심의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.

이번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확대 배경 및 지원 내용은?

2009년 1월부터는 경제난극 극복을 위해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코자, 지원액을 2년에 정상가 5억 원에서, 20억 원으로, 월 신탁 가능액도 벤처가 2,700만 원에서 월 5,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, 라디오 우선시간대도 방송 3사 AM, FM 별로 추가했고, 또한 지상파 DMB 보너스 200% 지급, 방송시점도 지원 선정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.

1998년부터 현재까지 11년째 방송광고 지원 사업을 하였는데 방송광고를 통한 지원실적은?

1998년부터 2009년 3월까지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제도를 통해 총 1,089개 벤처기업, 이노비즈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264억 원(정상가 기준 881억 원)의 광고를 집행, 실질적으로 617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.

방송광고 지원사업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은?

방송광고 지원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 및 마케팅 능력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, 앞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,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코자 방송사,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,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,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.

* 자세한 사항은 www.kobaco.co.kr에서 알 수 있다.